

□□ □□□ □□ □ □□□ □□□

2017년 상반기 작은 전시



광  
제  
호  
·  
머  
나  
면  
여  
정

5. 22(월) - 9. 3(일)

2017년 상반기 작은 전시 <광제호-머나면 여정>가 5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2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광제호 작가는 머나먼 여정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작품에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광제호 작가의 예술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전시관 내부모습

1 □ □ □ □ □ □ □ □ □ □

# 광제호 - 머나먼 여정

대한제국은 1876년에 체결한 강화도조약에 따라 제물포를 개항하였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사건과 같은 포함외교(砲艦外交)를 겪으면서 고종은 해군력 강화에 주력하였고, 조선해방수사학당의 설립과 열강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군함을 도입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함선인 양무호(揚武號)와 광제호(光濟號)를 도입하였는데, 모함은 개항의 최전선인 인천 제물포였다.

---

## 광제호

양무호의 실패를 경험한 대한제국은 해군 중세무사 브라운의 발의에 따라 일본 가와사키조선(川崎造船)으로부터 광제호를 구입하였다. 해안 경비, 동대 순시 및 세관 감사에 이용하기 위한 광제호는 당시 최신의 조선 기술로 제작되었는데 무선 전신 시설이 설치되어 활미도 무선 전신소와 첫 교신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인천 제물포항에서 정박 중인 광제호 | 1904년

속도	전장	너비	선심	무기	외물 적재량	총톤수	최대속도
5 노트	220척 (약 73m)	30척 (약 10m)	21척 (약 7m)	3인치 포 3문	540톤	1,056톤	14.77노트

2017년 상반기 작은 전시
5. 22(월) - 9. 3(일)

### 1부 | 근대식 함선 도입의 배경

**대한제국의 해군력 강화 의지**

**양무호**

대한제국은 일본 미쓰비시조선(川崎造船)으로부터 함선을 구입하였다. 그중은 1904년 4월 19일 제물포항에 도착한 이 함선을 '나라의 힘은 바다에서다'라는 뜻으로 '양무호'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양무호는 개항 4주년에 달하는 2년 3개월 동안 운영 비용을 감당 할 수 없어 제물포항에 7개월에 있는 날이 더 많았다. 1909년 일본 제국에서 강제징거의 영향을 받은 자재의 유통도 하지 못한 탓에 1912년에 통하지는 비용을 많았다.

부산 제물포항으로 출항 중 양무호 | 1904년

전장	너비	전심	무기	외물 적재량	총톤수	최대속도
약 220m (약 73m)	약 30m (약 10m)	약 21m (약 7m)	3인치 포 3문	540톤	1,056톤	14.77노트

### 광제호 - 머나먼 여정

대한제국은 1876년에 체결한 강화도조약에 따라 제물포를 개항하였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사건과 같은 포함외교(砲艦外交)를 겪으면서 고종은 해군력 강화에 주력하였고, 조선해방수사학당의 설립과 열강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군함을 도입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함선인 양무호(揚武號)와 광제호(光濟號)를 도입하였는데, 모함은 개항의 최전선인 인천 제물포였다.

**광제호**

양무호의 실패를 경험한 대한제국은 해군 중세무사 브라운의 발의에 따라 일본 가와사키조선(川崎造船)으로부터 광제호를 구입하였다. 해안 경비, 동대 순시 및 세관 감사에 이용하기 위한 광제호는 당시 최신의 조선 기술로 제작되었는데 무선 전신 시설이 설치되어 활미도 무선 전신소와 첫 교신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인천 제물포항에서 정박 중인 광제호 | 1904년

전장	너비	전심	무기	외물 적재량	총톤수	최대속도
약 220m (약 73m)	약 30m (약 10m)	약 21m (약 7m)	3인치 포 3문	540톤	1,056톤	14.77노트

2024년 4월 15일부터 1903년 4월 15일까지 43년간... 동경상선학교 졸업증서 (1901년), 동경상선학교 우등증서 (1906년)... 광제호 항해사 시절의 신순성 함장 | 1906년

2. 조선우선망로도 사진엽서





조선우선주식회사 25년사 | 1911

조선우선주식회사 25년사



광제호의 사관 일동(뒷줄 왼쪽에서 2번째) | 19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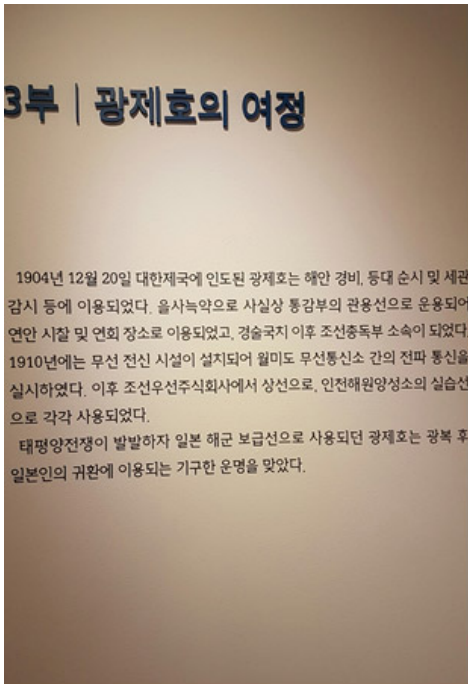
광제호의 사관 일동

2000년 00 000 00 0 000 000 00 000 00 000000000, 000 000 000 000 00, 00 0000, 0000 00 000 0000. 0000000 0000 000 000 000 0000. 0 0 00000000 00 0 00000 000 00 00 0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 0 00000 00000 00000 000000 00 00 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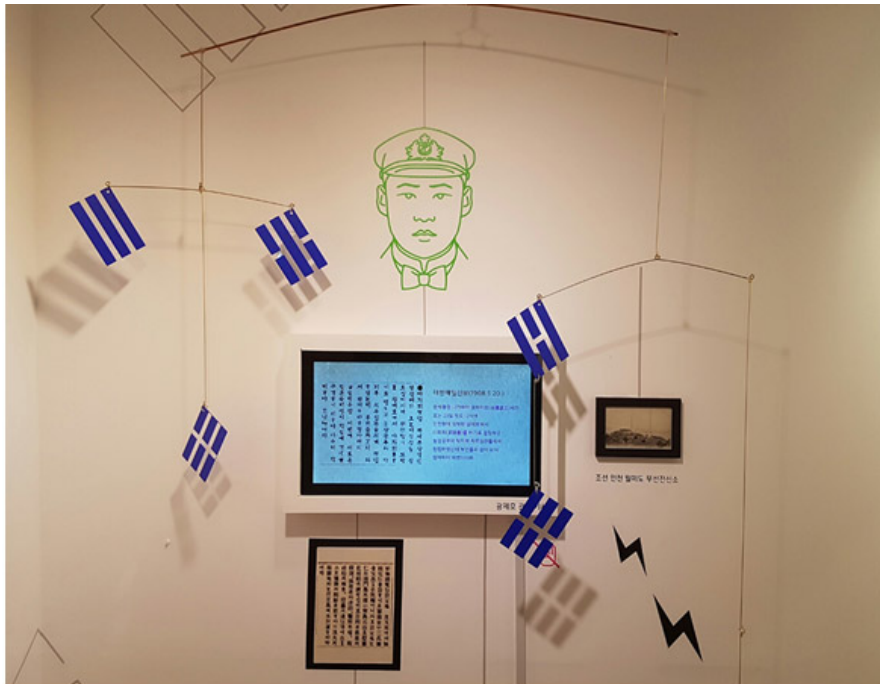
3

0000

00



광제호의 여정에 대한 소개



광제호 관련 기사

30000 0000 000 000. 1904 12 20 00000 000 0000 0000, 00 00 0 00 00 00 00000. 0000000 000 00000 00000 0000 00 00 0 00 000 0000 0, 00000 00 000000 000 000. 1910000 000000000 0000 000 000000 00 00 000 000000. 00 000000000000 0000, 0000000000 00 000000. 0000000 00000 00 00 000000 00000 00000 00 0 00000 000 00000 0000 0000 0000.

**4부 | 태극기 휘날리며**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시 찾아 왔다.”

광제호에 계양되었던 태극기이다. 경술국치 전야인 1910년 8월 28일 밤 신순성 함장이 세상의 눈을 피해 고이 간직하였던 것이다. 광복을 기다리던 이 태극기는 신 함장이 별세한 직후인 1945년 빛을 보았다. 그해 10월 27일 신 함장의 장남인 신태범 박사가 가선 '부산호'의 취항 식당에 이 태극기를 들고 외 "광제호에 달았던 것이나 이를 계양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일화로도 유명하다.

근대식 가선 광제호에 계양되었던 태극기 | 인천개항박물관 소장 (복제품)



000 40000 0000 00000 0000 00 0000 000 000000. 0 0000 000 0000 0 000 000 1910 8 28 0 000 000 000 00 00 00 000 000. 000 0000 0 0000 0 000 000 000 1945 00 000. 2017 000 00 00 <000-000 0 0>000 000 00 00000 00 00000 00 00 000 00 0 000 000 000 00 000 00 00. 00 000 000 00 00 000 000 000 0000000 000 000 00 00000. 000000 000 000 00 00000 00000 00 000 00000 0 000. <000-000 00>000 9 3 00 0 0000000000 000.

0, 00/ 0000003.0 0000 000